

서울은 미술관 SEOUL IS MUSEUM
국제 International
컨퍼런스 Conference

2016. 12. 13. 화(TUE) / 12. 14. 수(WED)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서울은 미술관 SEOUL IS MUSEUM

국제 International
컨퍼런스 Conference

2016.12.13.화(TUE)/12.14.수(WED)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Contents

인사말_Greeting	04
프로그램_Program	08
연사_Speakers	10
세션(Session) 1. 공공미술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인가? Is Public Art Necessary for Seoul?	13
서울시 공공미술 회고와 전망 : 50년± 50 years ± : Retrospect and Prospect of Public Art in Seoul	15
청계천복원으로부터 생각하는 서울의 공공미술 Cheonggyecheon Revitalization: Re-think about the Public Art in Seoul	16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Art	18
공공공간 속의 공공미술: 장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문제 Public Art in Public Space	19
세션(Session) 2. 도시의 삶과 예술 Life and Art of the City	21
공공미술과 변화하는 공공가치 Life and Art of the City	23
세션(Session) 3. 시민공감 공공미술 제안 Public Art Proposal for Citizens	25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발표 <Art's on Seoul's Street Found by Citizen> team presentation	27
<만리동에서 온 편지> 발표 <The Letter from Malli-dong> video presentation	30
세션(Session) 4. 세계의 공공미술 Public Art in the World	31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 Art that Enriches the City	33
공공미술 & 공공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기 Planning & Designing Public Art & Public Life	35
세션(Session) 5. 내생애 단한곳 단한점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in My Life	37
<단한곳 단한점> 작가제안 발표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artist video presentation	39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결과발표 <Public Art in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result presentation	41
세션(Session) 6. 서울은 (공공) 미술관 패널토론 Seoul is (Public) Museum Panel Discussion	43
「서울은 미술관」 선언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약속 Declaration of 「Seoul is Museum」 - The Promise of SEOUL URBAN ART PROJECT	47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제1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도시공간에 예술적인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아, 시민이 주도하고 향유하는 공공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단순히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공공공간 곳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공공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도시 전체가 생동하는 미술관이 되는 것이 바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목적이자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는 바로 이러한 공공의 염원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공공미술 정책사례와 노하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공공미술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론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시민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다함께 예술을 통한 호흡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은 거대한 조각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값비싼 고급미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서울에 공공미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공공미술이 시민들과 함께 숨 쉴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 서울시 공공미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예술이 도시의 삶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토론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에 대해 제안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통해 서울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먼 곳까지 와주시는 연사 여러분, 토론자, 미술계 및 각계 전문가, 예술가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통해 생동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Greeting

Hello. I am PARK Won Soon,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e first SEOUL IS MUSEUM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city of Seoul launches SEOUL IS MUSEUM public art project this year in order to pursue public value of beautiful life of its people, embrace artistic imagination and humanity in urban space, and to establish base for public art that the citizens lead and enjoy.

SEOUL IS MUSEUM designates not just to arrange artworks in and around the city, but to create art for public by the citizens participating and breathing in every space in the city. Thus, it is the aim and direction of the SEOUL IS MUSEUM public art project to make the entire city a living museum.

SEOUL IS MUSEUM International Conference is an event to listen to the public's hope and the citizens' voic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e will be able to share the policy examples and knowledge of public art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n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future progress, and to confirm a new discourse on public art.

Through the discourse, we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all the citizens can enjoy and breathe together in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reathe resides neither in a huge sculpture, nor in an expensive work of fine art. It should begin from "why does Seoul need public art?" and "If so, what kind of public art can breathe with the citizens?" SEOUL IS MUSEUM International Conference begins from the very questions.

At the conference, I expect to confirm the present state of public art in Seoul, discuss the ways of art to change urban life and space, to suggest and recommend public art that can be widely shared, and thus, to share various thoughts for a better future of Seoul.

Again, I would like to thank speakers coming from far away, panels, and professionals in art and every field, artists and citizens. The city of Seoul will lead in making a lively city through public art. I hope you to enjoy and participate in various projects of Seoul.

Thank you.

December 2016

Th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ARK Won Soon**

인사말

‘서울은 미술관’을 위하여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의 이름은 ‘서울은 미술관’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세기 동안 겪어온 산업화와 도시화의 한 복판에서 서울은 급변하는 삶의 현장이었지, 미술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고 일상에서 한걸음 벗어나 삶을 성찰하는 미술관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숨 가쁜 개발과 재개발의 역사 속에서 서울은 OECD국가 대도시 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건축물미술작품제나 도시갤러리 사업을 통해 서울의 공공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그 효과는 서울의 도시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매년 3백 점 가량의 미술작품이 건축물미술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들어오고 있지만, 서울 시민은 정작 이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고, 미술계의 주요 작가들은 중개업자와 일부 미술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이 분야를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슬로건은 역설적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는 서울을 미술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램이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공공미술을 통해서 서울을 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6개월 전에 출범한 공공미술 자문회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을 논의해온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시민과 더 많은 미술가들이 참여하여 공공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기존의 공공미술이 어떤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까지의 관행을 변화시킬 대안적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반 년 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공공미술 시민 발굴단, 도심제조지역 아트플랜, 단 한 곳 단 한 점 사업에 참여해주신 시민, 미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불가능한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공공미술자문단장 **안 규 철**

Greeting

For SEOUL IS MUSEUM

The title of public art project of the city of Seoul is SEOUL IS MUSEUM. Of course, many would not agree with this. Yes, Seoul is not a museum. In the past century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eoul was a field for rapidly changing lives, but not a museum where we sustain the community's memory, express spirit of the time, and meditate outside of everyday life through art.

In the course of rapid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Seoul became a metropolitan city among great cities in OECD countries, which has the highest population and the most rapidly transforms. Although there have been efforts to improve environment by installing artworks in public space through the Building Artwork Policy, its impact was not enough to radically change the urban environment of Seoul, but rather engendered counter-effects.

Today approximately 300 artworks enter to Seoul as Building Artwork every year, but the citizens are not interested in them and major artists disregard the field where brokers and some artists dominate. However, for the very reason, the slogan SEOUL IS MUSEUM can be a meaningful statement. It implies a hope to make Seoul a museum. It is a promise to transform the beloved and proud city of Seoul through public art.

Having discussed the public art project in advisory meetings for 6 months, we are well aware of the fact that this task is not easy and anything cannot be changed so easily. We would like to start to discuss a new possibility of public art with participation of more citizens and more artist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in order to examin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public art and explore alternatives to change conventional practices.

I deeply appreciate speakers from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and all interested parties of the city of Seoul, and also the public art citizen investigators who worked for 6 months, Art Plan in urban manufacturing area, and citizens, artists, designers, and architects participating in Just One Place, My One & Only Work.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allow us to dream an impossible dream of SEOUL IS MUSEUM.

Thank you.

December 2016

The Head of Seoul Urban Art Project Advisory Committee **Ahn, Kyu-chul**

Program_13th December 2016

12.13. 화요일(Tue)

10:00~10:40	개회식 Opening Ceremony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서울은 미술관」 추진방향 및 현황 안규철 (공공미술자문단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Seoul is Museum] Progress Direction and the Present State Ahn, Kyu-chul (Head of the Public Art Advisory Committee)
10:40~10:50	장내정리 및 휴식 Break
10:50~12:00	세션 1. 공공미술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인가? 서울시 공공미술 회고와 전망 : 50년±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청계천복원으로부터 생각하는 서울의 공공미술 최태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Session 1. Is Public Art Necessary for Seoul? 50 years ± : Retrospect and Prospect of Public Art in Seoul Park, Sam-chul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Seoul Design Foundation) Cheonggyecheon Revitalization: Re-think about the Public Art in Seoul Choi Tae man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12:00~ 13:30	중식 Lunch
13:30~14:30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김선아 ((주)에스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공공간 속의 공공미술: 장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문제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Art KIM Seon-Ah (CEO of studio SAK inc.) Public Art in Public Space Zoh Kyung Jin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14:30~14:40	휴식 Break
14:40~15:30	세션 2. 도시의 삶과 예술 공공미술과 변화하는 공공가치 패트리샤 월시 (미국예술연합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 / 미국) Session 2. Life and Art of the City Public Art and Changing Public Values Patricia Walsh (Public Art Programs Manager of Americans for the Arts / U.S.A)
15:30~15:50	휴식 Break
15:50~17:00	세션 3. 시민공감 공공미술 제안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발표 <만리등에서 온 편지> 발표 Session 3. Public Art Proposal for Citizens <Art's on Seoul's Street Found by Citizen> team presentation <The Letter from Malli-dong> video presentation

Program_14th December 2016

12.14. 수요일(Wed)

10:00~11:00	세션 4. 세계의 공공미술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 헬라 헤른베르그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 디렉터 / 핀란드) Session 4. Public Art in the World Art that Enriches the City Hella Hernberg (Director of Urban Dream Management / Finland)
11:00~11:10	휴식 Break
11:10~12:00	공공미술 & 공공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기 저스틴 개럿 무어 (뉴욕 공공디자인 위원회 사무국장 / 미국) Planning & Designing Public Art & Public Life Justin Garrett Moore (Executive Director of NYC Public Design Commission / U.S.A)
12:00~13:30	중식 Lunch
13:30~14:00	세션 5. 내생애 단한곳 단한점 <단한곳 단한점> 작가제안 발표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결과발표 Session 5.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in My Life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artist video presentation <Public Art in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result presentation
14:00~14:10	휴식 Break
14:10~15:10	세션 6. 서울은 (공공) 미술관 패넬토론 공공의 예술, 공공을 위한 예술 주제1. 공공장소에 세워진 조형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Session 6. Seoul is (Public) Museum Panel Discussion Art of the Public, Art for the Public Subject 1. To whom does a work in public space belong?
15:10~15:30	휴식 Break
15:30~16:30	주제2. 예술이 도시공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Subject 2. How Should Art Intervene in Urban Space?
16:30~16:40	휴식 Break
16:40~17:00	「서울은 미술관」 선언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약속 Declaration of 「Seoul is Museum」 The Promise of SEOUL URBAN ART PROJECT

연사_Speakers



패트리샤 월시_Patricia Walsh / 미국(U.S.A)

미국예술연합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

Public Art Programs Manager of Americans for the Arts

패트리샤 월시는 미국예술연합의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이다. 라스베이거스와 산호세를 포함한 많은 시정부에서 일한 바 있다. 월시는 보스턴 대학의 예술 행정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Patricia Walsh is the Public Art Programs Manager in the Americans for the Arts. She has worked for several city governments, including the city of Las Vegas and the city of San Jose. She received MA degree in Arts Administration at Boston University.



헬라 헤른베르그_Hella Hernberg / 핀란드(Finland)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 디렉터

Art that Enriches the City

헬라 헤른베르그는 희귀한 자원의 창의적 사용과 건축 환경의 참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다. 또한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헬싱키 테크놀로지 대학 건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알토대학 디자인 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Hella Hernberg is an architect and designer specialized in creative use of scarce resources and participatory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She is also the director of Urban Dream Management. She received her MA degree in Architect (MSc) at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is now a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Design at Aalto University.



저스틴 개럿 무어_Justin Garrett Moore / 미국(U.S.A)

뉴욕 공공디자인 위원회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of NYC Public Design Commission

저스틴 개럿 무어는 도시 디자이너이자 뉴욕시 공공디자인부서의 사무국장이다. 또한 미국 도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어반 패치의 공동설립자이다. 컬럼비아 대학의 건축 도시 디자인 학과에서 건축학과 과학 이중석사학위를 받았다.

Justin Garrett Moore is an urban designer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City Public Design Commission. He is also cofounder of Urban Patch, which aims to make American inner city better. He received dual degree of Master of Architecture and Master of Science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at Columbia University.

연사_Speakers



박삼철_Park, Sam-chul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Seoul Design Foundation

공공미술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2000년 말컴 마일즈의 <미술, 공간, 도시>를 번역하고 2006년 <왜 공공미술인가>를 저술했다. 2007~2009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도시갤러리> 추진단장을 맡았고, 2009년 서울디자인재단 창단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기획 및 운영에 참가했다. 현재는 DDP 상생본부장, 서울시 공공미술자문위원이다.

He works as a programmer of Public Art and now the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at Seoul Design Foundation and a member of Public Art Committee of the city of Seoul. He also translated Malcom Miles' Art, Space and the City in 2000 and wrote Why Public Art in 2006. He was the head of steering group of City Gallery, a Public Art project of Seoul, and after the initiation of Seoul Design Foundation in 2009,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operating of DDP.



최태만_Choi Tae ma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후, 현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미술평론가·미술사학자·전시기획가로써 2014년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사)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회장, 김종영미술관 운영위원을 맡고있다.

He graduated Painting, School of th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Fine Arts, College of Art, Kookmin University. He is an active art critic, art historian, and curator, and worked as an art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Now, he is the vice-president of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an operating member of Kim Chong Yung Museum, and an operating member of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김선아_KIM Seon-Ah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주)에스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CEO of studio SAK inc.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이탈리아 베네통 건축대학 졸업. 200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공공 건축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도시계획가 협회 이사, 한국건축가협회 이사로 활동중이다.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전시 연출, 서울시 낙원상가. 돈화문로 도시재생 총괄 계획 경력이 있다.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Han-yang University and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Venice University, Italy. She worked as a member of the Seoul Urban Architecture Joint Committee, and is a public architect of the city of Seoul, a member of Seoul Urban Park Examining Board, a director of Korean Institute of Urban Planners, and a director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She directed the exhibition of Yeosu Expo 2010 and planned the regeneration project of Nakwon Market and Donhwa Moon in Seoul.



조경진_Zoh Kyung Ji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서울대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졸업 및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박사. 2003년 서울숲 현상공모 동심원과 함께 당선되었으며, 2018년 개장할 서울식물원의 계획 및 설계를 총괄하였다. 현재 용산공원 시민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He received BA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MA in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at Pennsylvania University, the U.S. He was elected with Dong Sim Won at the Seoul Forest Contest and handled the planning of the Seoul Botanic Park, which will open in 2018. Now he is worki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 Forum of Yong-san Park.



세션(Session) 1.

공공미술은 서울에 꼭 필요한 것인가?

Is Public Art Necessary for Seoul?

좌장 :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

Moderator : Park Seongtae (Junglim foundation, Director)

서울시 공공미술 회고와 전망 : 50년±

50 years ± : retrospect and prospect of public art in seoul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Park, Sam-chul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Seoul Design Foundation)

청계천복원으로부터 생각하는
서울의 공공미술

Cheonggyecheon Revitalization: Re-think about the Public Art in Seoul

최태만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Choi Tae man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Urban Renaissance and Public Art

김선아 (㈜에스에이케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KIM Seon-Ah (CEO of Studio SAK inc.)

공공공간 속의 공공미술 : 장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문제

Public Art in Public Space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Zoh Kyung Jin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 공공미술 회고와 전망 : 50년±

50 years ± : retrospect and prospect of public art in seoul



박삼철_Park, Sam-chul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Seoul Design Foundation

1967년 영국에서 나온 <Art in A City>와 미국 NEA의 'Art in Public Places Program'을 계기로 세상은 공공미술을 예술 및 정책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에 발맞춰 예술가들은 창작과 기획, 비평에서 다양한 태도와 관점, 도전을 일구며 공공미술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동기나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서울도 1967년 <애국선열조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광화문에 1968년 이순신장군상을 처음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장소 속 조각'의 시대를 연다.

서구의 경우 공공미술이 art in public space, art as public space, art in public interest의 개념 및 형태로 확장, 발전을 할 때, 우리는 동상, 건축물 미술장식, 도시개발 공공미술, 도시갤러리 등을 차례로 경험했다.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흐름은 공통적으로 공간을 장소의 맥락으로, 예술가를 작품을 만드는 이에서 머물만한 공간을 만드는 이로, 시민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사용자로 해석하려는 문화적 진보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 공공미술은 행정적 목표가 예술적 동기를 앞섰던 도시갤러리의 한계를 공공미술1.0으로 평가하는 한편, 미술을 보여주는 것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계획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공공미술2.0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펼친다.

그 핵심은 "힘을 형태로, 에너지를 문화로, 죽은 물건을 살아있는 상징으로, 생물적 복제를 사회적 창의로 바꿔주는 것" (루이스 머포드, The City in History)의 문화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With the opportunity of Art in A City in England in 1967 and Art in Public Places Program of NEA in the U.S., the world began to consider public art as a part of art and administration. Keeping up with this, artists has led the development of public art, by various attitudes, perspectives, and attempts in creation, planning, and critique. Although having different motivation and contexts, Seoul opened the era of 'sculpture in public space,' when the Committee of Sculpture of Deceased Patriots set to work and established the statue of the general Lee Sun-shin at Gwanghwamun Gate in 1968.

When public art expanded and developed into concepts and forms of art in public space, art as public space, and art in public interest in the West, we experienced statues, embellishment in architecture, public art in urban development, and city gallery in turn. All of them are based on cultural progress, which interprets the space as a place, the artist as creating a space to stay, not an artwork, and the citizen as an active user, not a passive audience.

Public art of the city of Seoul evaluates the limitation of city gallery, in which administrative aim proceeds its artistic motivation, as the version 1.0 of public art, and unfolds the version 2.0 of public art project SEOUL IS MUSEUM, which transforms showing art into experiencing art and urban planning into urban regeneration through public art.

Its point is a cultural realization "to change power into a form, energy into culture, a dead object into live symbol, biological imitation into social creation." (By Lewis Mumford, The City in History)

청계천복원으로부터 생각하는 서울의 공공미술

Cheonggyecheon Revitalization: Re-think about the Public Art in Seoul



최태만_Choi Tae ma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2003년 7월 1일에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2년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고 2005년 10월 1일 개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계천이 복원된 후 한 달 만에 627만 명이 이곳을 다녀갈 만큼 시민들로 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 십 년을 맞이한 2015년까지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의 누적 수는 1억 6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통계상으로는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공사를 마친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로 말미암아 청계천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구조물로 포위된 '길게 누운 분수대', '거대한 어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한때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나 노후하여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고, 도심경관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도심자연을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청계천 주변의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도심정비에 따른 지가상승의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생태환경과 역사 복원에는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고밀도화란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서둘러 완공한 청계천 복원사업이 청계천의 정체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는 점은 청계천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공공미술은 단지 미술가만의 영역에 속하는 분야는 아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건축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도시계획 속의 미술 등으로 나타난 공공미술은 그 취지가 추구한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있어야 할 작품이 도시공간으로 장소이동하거나 유명작가의 작품이 도시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맥락과 상관없이 설치됨으로써 공공미술을 사유화하는(privatized)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도시를 스펙타클로 채우려는 공공미술이 성행할수록 공공미술의 실수요자인 시민은 관객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공공미술은 사진촬영을 위한 배경의 기능만 할뿐 삶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으며, 심하면 예술에 대해 계몽하는 위압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이 발표는 청계천 복원에 개입된 공공미술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의식 아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실현되는 장으로서 청계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미술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The revitalization of Cheonggyecheon, starting on July 1st, 2003, was completed and opened on October 1st, 2005. According to the press, Cheonggyecheon received attention and love by so many people to the extent that 6,270,000 people visited it during a month.

The accumulated number of visitors until 2015, the 10th anniversary of Cheonggyecheon, is around 1,00,006,000, and as such, the number designates suc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owever, some people claim that Cheonggyecheon is not an ecological river, but 'a lying fountain' and 'a huge fish tank,' due to a lack of full consideration of the citizens' opinions and the result-driven merit system.

It is obvious that the project resolved a safety problem of a highway, which was once the symbol of modernization, but now obsolete, and restored at least in part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city by enhancing the urban landscape and providing waterfront space.

Also, it improved the air environment around the river and resulted in increase in the price of the land nearb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downtown.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it ignored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toration of history and brought about high population density of its neighborhood. Most of all, the project left a mission to re-think about Cheonggyecheon as its hasty revitalization obfuscated the river's identity and deprived of an opportunity to restore it for a duration long enough.

Today urban public art is not attributed only to artists. As awareness on public art has grown since the mid-20th century, public art appeared in forms of art in architecture, art in public space, or art in urban planning. Despite its objective of 'publicity,' public art sometimes produces negative results of privatization of public art, for example an artwork that should be in a museum was moved to urban space or a famous artist's work was installed regardless of the city's identity or regional contexts. When public art filling the city with spectacle becomes popular, the citizens, who are actual consumers of public art, may only remain as the audience, public art may be alienated from life only as a background in photographs, and moreover, it can be enlightening and oppressive regarding art.

The presentation will cast a question that public art engaged in the revitalization of Cheonggyecheon is not free from these problems and suggest a possibility of public art in Cheonggyecheon, on which Collaborative Governance can be realized.

도시재생과 공공미술

Urban Regeneration and Public Art



김선아_KIM Seon-Ah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주)에스에이케이 건축사무소 대표

CEO of studio SAK inc.

삶의 터전으로써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의 쾌적성, 부동산적 가치 향상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분야까지 통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한국의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도시재생의 공공성이라는 개념 안에는 “지역”, “시민”, “모두의, 또는 공동체”, “역사”, “문화” 등의 의미들이 재생의 장소와 직접적 관계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 이전의 도시정비 방법들 또한 공공성을 지향했으며, 위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 포괄적 의미를 지향하는 추상적 아젠다로 추구되었다.

도시의 속성상 -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름의 원칙과 가치를 추구한다. 도시와 미술의 관계에서의 공공성은 오늘날의 주제가 아니라 항상 추구했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과 공공미술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 차이에 주목하며, 도시와 미술의 직접적 관계 맺기에 대한 그간의 진행 내용과 과정 그리고 결과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분야를 보았을 때 이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작가의 내재적 작품 세계를 넘은 영역에서의 미술계의 활동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 미술, 넓게는 예술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 미술의 공공성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그 가치의 확산과 정착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도시와 공공미술 관계성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를 열어보고자 한다.

Urban Renaissance in Korea aims to improve the comfort of environment and the real estate value by improving material environment of living space and to vitalize regions by incorporating social and economic domains. Its main value is publicity. In the notion of publicity, meanings, such as “region,” “citizens,” “all or community,” “history,” and “culture,” reside in direct relation to the place of renaissance.

On the contrary, while urban management methods before the renaissance also aimed for publicity and implied such meanings above, it was intended as abstract agenda with indirect, comprehensive meanings, not a direct relationship. Due to the nature of a city, people pursue their own principles and values in terms of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regardless of their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art, publicity has been always pursued.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renaissance and public art, we need to focus on the current method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and examine the process and results of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art. In the realm of art, the artistic activities, which are based on publicity and go beyond an artist's inner world, are not today's phenomenon, but started with history of art, or that of the arts. It is why I'd like to examine the publicity of art in the paradigm of urban renaissance and open a discussion on sustainabilit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public art in order to know its possible value and settlement.

공공공간 속의 공공미술: 장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문제 Public Art in Public Space



조경진_Zoh Kyung Ji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Professor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광장, 가로, 공원과 같은 도시 공공공간은 한 도시의 고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공공공간에서 공공미술은 도시에 표정을 만들어주고, 활력을 주며, 정체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다. 도시 공공미술은 문화적 품격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공유가치를 표현한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에 매력요소를 부여하거나, 장소와 관련된 스토리를 전달한다. 최근에는 공공미술이 쇠퇴한 공공공간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공공미술이 전개되는 방식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팝업 방식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공공미술은 장소의 인지성을 향상시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가치를 증진시킨다.

공공공간은 타인과의 만남, 의사교환을 통하여 상호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이다.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으로서 공공공간에서 공공미술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할까? 첫째의 조건은 장소특정성이다. 미술관에서 단지 외부로 옮겨진 미술이 아니라, 장소와 호흡하면서 관계의 미학을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는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공공미술이 공공의 이름으로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안 되며, 도시 공동체가 공유하는 동시대적 가치와 이슈를 담아야 한다. 셋째는 작품의 지속가능성이다. 트렌드에 부응하는 공공미술은 생명력은 길지 않다. 유행이 지나고 관심이 줄어들면 공공미술의 가치는 퇴색한다. 시간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장소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서울시 공공공간 놓여진 공공미술을 논의할 것이다. 대상지로는 서울숲, 경의선숲길, 코엑스 광장, 강남대로이다. 첫째, 서울숲에는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이 있다. 각기 다른 사업과 기획으로 설치된 작품이다. 조각정원은 미술관 소장 작품이 설치된 장소이다. 현재 산재된 작품은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황이다. 장소의 경험과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작품들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경의선숲길에도 여러 주체들이 설치한 작품들이 있다. 경의선 책거리, 땡땡거리 등에 설치된 작품은 지역 맥락에 어울리는 특성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공덕역 구간에 설치된 4점의 조형물은 장소 성격과도 부합하지 못하고 시민과 작품 의미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삼성역 코엑스의 강남스타일 조형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장소마케팅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들과 미디어의 반응을 검토하면서 시민의 공간 주권과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한다. 넷째는 강남대로 미디어폴이다.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으로 추진된 강남대로 미디어폴은 미디어아트와 정보를 전시하는 인프라로서 설치하였다. 2009년 조성된 후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 전시를 위한 인프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며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4가지 사례대상지 작품을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공공미술 방향과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Urban public space, such as plaza, streets, and parks, is where one can feel the unique atmosphere of the city and experience its energy. In public space, public art is a tool to make the city's expressions, vitalize it, and offer an identity to the city. Urban public art reveals the city's cultural elegance and expresses the community's shared values. Public art bestows charm to public space or delivers stories related to the space. Recently, public art serves as a method to activate run-down public space and improve regional activation. The way of developing public art became multiple, for example, use of digital media or pop-up. Public art can be used as a resource for cultural tourism by enhancing the awareness of the space, and in a long term can improve the value of the area.

Public art is a base where mutual perception is available through meetings and conversations with other people. As a platform of communication and sharing, what kind of value should public art in public space aim for? The first condition is site-specificity. Public art should aim for a relational aesthetics breathing with the space, not an art outside. The second one is to secure publicity. Public art should not represent the private interest under the name of publicity, but contain values and issues shared by the contemporary urban communities. The third one is sustainability of artworks. Public art answering to trend does not last long. If the trend changes and interest in it diminishes, the value of such public art declines.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emporal sustainability but also that of management.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public art in public spaces of Seoul in terms of placeality, publicity, and sustainability. The areas in discussion are Seoul Forest, Kyung-eui sun Forest, Coex Plaza, and Gang-nam boulevard. First of all, Seoul Forest has various public art works. They are made according to different projects and plans. Sculpture Garden is where a collection of museum is installed. However, the works lack consideration of their sites. A rearrangement of the works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the area's experience and value. Secondly, there are many artworks made by many agencies in Kyung-eui sun Forest. Works located in Kyung-eui Book Street, Tang Tang Street, etc, try to deliver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However, 4 pieces that were recently installed near Gong-duk station do neither fit to the area nor share any meaning or story with citizens. Third one is Gang-nam Style statue in Coex, Samsung station. The project was made for marketing of the area, but only engendered disputes. I will discuss the place rights of citizens and sustainability of the work, while examining reactions of citizens and the media. Fourth one is the media pole in Gang-nam boulevard. As a part of the Design Seoul Street Project, the media pole was installed as infrastructure to exhibit media art and information. It has engendered many problems regarding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since its installation in 2009. It was once utilized as infrastructure for multi-media exhibition, but now it became useless. I will discuss the four examples and provide the direction and condition of desirable public art.

세션(Session) 2.

도시의 삶과 예술

Life and Art of the City

공공미술과 공공가치 변화

Public Art and Changing Public Values

패트리샤 월시(미국예술연합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

Patricia Walsh(Public Art Programs Manager)



공공미술과 공공가치 변화

Public Art and Changing Public Values



패트리샤 월시_Patricia Walsh / 미국(U.S.A)
 미국예술연합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
 Public Art Programs Manager of Americans for the Arts

서론

공공미술은 시민들의 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영향 그리고 공동체에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발표에서 나는 공공미술이 실행되는 구조와 프로젝트 사례들을 논의함으로써 공공미술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볼 것이다. 또한 미국 전역의 공공미술계가 직면한 최근의 몇몇 사회적 도전들과 이슈들도 살펴볼 것이다.

공공미술과 미국예술연합(Americans for the Arts)

발표의 시작으로, 예술과 관련한 미국의 상황과 미국예술연합이 어떻게 전국, 주, 그리고 지역 운동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는지 설명할 것이다. 특히, 미국예술연합 내 나의 역할과 내가 전국에서 공공미술계를 이끌기 위해 한 일을 소개할 것이다.

공공미술의 사회적 이슈들

공공미술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구조에 이들 고유의 도전과 사회적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파트에서 나는 이러한 몇몇 도전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공미술이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이슈들에는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평등, 미술가의 권리, 그리고 일시적 대 영구적 공공미술의 교환이 있다. 각 사회적 문제들의 사례로 프로젝트들을 보여줄 것이다.

프로젝트 사례로 보는 공공미술 정책과 구조

이어서 발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공동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미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과 정책들을 사례로 들며, 공공미술이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어느 때에 특정한 사회 문제에 더 적합하게 쓰였는지 그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정책 사례들은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미국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에서 행해진 작품들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우리가 논의할 정책들은 공공의 그리고 민간의 퍼센트 포 아트(percent for art), 이타적인 기반 작업, 비영리와 공동체/미술가가 시작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공공미술작품의 민간 기금이다. 이러한 정책 구조들 각각을 미래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최대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결론

결론에서는 이 발표의 요점을 정리하고, 공공미술의 미래와 미국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다.

Introduction

Public art has a unique attribute to be a platform for civic dialogue, social change, economic impact and providing an artistic experience for a community. During this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how public art can enact social change by discussing implementation structures and project examples. I will review some of the current societal challenges and issues facing the public art fiel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United States and Social Issues

The presentation will begin with an overview of the population and geographic spread of the USA and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some of the social issues facing the nation. I will show how dispersed the populations is across the country and how social issues, including politics and economics impact the changes in demographics over time. The goal of the USA overview is to provide context for the audience as we move through the focus of the presentation.

Public Art and Americans for the Arts

Moving forward, I will provide some context of the arts in USA and how Americans for the Arts (AFTA) supports the growth of national, state and local movements. Specifically, I will introduce my role at AFTA and the work I do to lead the public art field across the country.

The Social Issues of Public Art

Public art itself and the policies and structures that support it are not without their own challenges and social issues. In this section, I will spend time reviewing some of the outlin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public art can provide for a community. Some of the issues presented will include cultural and racial equity, artists' rights and the interchange of temporary versus permanent public art. Project examples will be provided for each of the social issues presented.

Public Art Policies and Structures with Project Examples

The remainder, and majority of the presentation will focus on how public art is implemented with examples of projects and policies that support artists impacting communities around the country. I will provide context for how these policies create positive change and when certain policies may be more appropriate for particular social issues. To connect with the overall theme of the conference the policy examples will be based on work done in largely populated areas and cities in the USA. Specifically, the policies we will discuss are public and private percent-for-art, philanthropic foundational work, non-profit and community/artist-initiated projects and private funding of public artworks. Each of these policy structures will be presented with up to two examples depicting potential outcomes.

Conclusion

During the conclusion I will sum up the main points of the presentation and provide some thoughts on the future of public art and the role it can play to engender change in the USA.

세션(Session) 3.

시민공감 공공미술 제안

Public Art Proposal for Citizens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Art's on Seoul's Street Found by
Citizen > team presentation

<만리동에서 온 편지>

<The Letter from Malli-dong> video
presentation



<시민이 찾은 길 위의 예술>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Art's on Seoul's Street Found by Citizen> team presentation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지난 두 달여(2016.08.27.~2016.11.05.) 동안 서울시 곳곳을 누비며 숨어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발굴해왔습니다.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부분 공공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큐레이터 10명이 10개 조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들 막연해했습니다. 연령대와 관심사가 다른 시민들이 모여 주제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발굴단의 눈에 공공미술작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공미술작품을 이제야 발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밤과 낮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작품을 따라 걷다 보니 멋진 산책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창밖에 작품이 보이면 내려서 사진을 찍고 가는 열정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똑같았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삭막한 줄로만 알았던 도시 서울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한 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에 작품이 있다고, 한번 시선을 돌려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작품 설명이 있었으면,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제 바쁜 시민들의 발걸음 속에 무심히 놓여 있던 작품들이, 숨겨져 있던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발굴단에게는 유서 깊은 건물도, 소나무 가로수도, 봄비는 지하철역도, 바닥의 보도블럭도 모두 서울의 공공미술이었습니다.

참가자

큐 레 이 터: 이진성, 이동은, 김수정, 서지은, 권효진, 이지나, 권연희, 이계영, 김현지, 이경미

시민발굴단: 강기영, 김광열, 김숙임, 남기소, 유소연, 이영란, 조상민, 한희정, 권민경, 남은아, 박문념, 안경희, 윤채민, 이영란, 정슬기, 조홍준, 김은영, 박성국, 안지숙, 윤해철, 이원경, 장정숙, 원정숙, 하남수, 이선아, 이영규, 이원경, 장혜섭, 최경천, 최은기, 권연옥, 김대진, 김혜령, 유순임, 이진형, 조금주, 김선희, 김현화, 백꽃별, 이랑, 조은경, 조은지, 한세리, 홍성욱, 구본준, 권수연, 김숙희, 김현옥, 김혜선, 양영숙, 정태영, 추인권, 신지연, 안미선, 안영희, 안유나, 윤영희, 이찬양, 조정희, 허서원, 문영식, 박혜숙, 서강식, 신미옥, 양혜숙, 이상준, 이슬기, 이현준, 고해자, 김광덕, 김미숙, 김미향, 박경미, 안병렬, 장선화, 정순희

주요일정

08.27	발대식
09.02~11.03	조별모임 또는 답사(4회 이상) 및 개별활동(조원당 10회)진행
09.03~10.27	큐레이터 워크숍(1차 09.03/ 2차 9.28/ 3차 10.27)
11.05	성과발표회

The Public Art Citizen Investigators excavated public art works in Seoul for the past two months (from August 27th to November 5th, 2016). The investigators are not public art professionals. It comprised mostly of ordinary citizens, not familiar with public art. 10 curators helped them as a guide to 10 teams. In fact, they didn't know what to do at first. It was not easy for thos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interests to gather and decide a theme together.

As time goes, the investigators began to look at public art works. Some were excited that they found out artworks near their home. They realized that a work can be seen differently in the morning and at night. They could draw an itinerary for a walk while walking along the works. They became so enthusiastic that they took off from a bus in order to take pictures of a work they saw on their way to home.

Most of all, their everyday life changed. The city of Seoul, once deserted, seems new. The investigators became able to discern each artwork and artists. They wanted to tell others that there is an artwork here. And they wished that the works have more explanations, receive more cares, and sometimes need to be moved to other sites.

Now artworks that were left at the feet of busy citizens began to shine with its hidden meaning. For the Citizen Investigators, a historic building, a pine tree, a crowded metro station, and even pavements on the streets are all public art of Seoul.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 활동기간: 2016.08.27.~2016.11.05.
- 전체활동: 08.27 발대식, 09.03 큐레이터 워크숍 1차, 09.28 큐레이터 워크숍 2차,
10.27 큐레이터 워크숍 3차, 11.05 성과발표회
- 조별활동: 10개 조별 전체회의 또는 답사 4회 이상 진행, 개별 활동 조원당 10회 기준으로 진행

조	조 이름	큐레이터	조원	주제
1조	고.서.미(Go.서.美)	이진성	7	중구, 너를 다시 보여주마!
2조	미소(공공미술을 소개합니다)	이동은	8	2호선 역사별 특징과 공공미술의 관계성
3조	이움(Yium)	김수정	8	서울시 공공미술 탐방코스: 발견, 비움, 휴식
4조	언타이틀(Untitled)	서지은	6	공공미술을 통한 서울스토리의 재발견
5조	30(삼공)	권효진	6	서울의 공공미술을 보는 세 가지 관점
6조	허니비(HoneyBee)	이지나	8	밤에 더욱 빛나는 공공미술
7조	해품달	권연희	8	한국의 미를 담아낸 공공미술을 찾아서
8조	팔딱팔딱	이계영	8	실용성과 심미성이 함께하는 공공미술·디자인
9조	±S(플러스마이너스 에스)	김현지	8	한강따라 사칙연산(+·-·×·÷)
10조	구.예.기(구석구석 예술 돋보기)	이경미	8	숨은 공공미술 찾기

<만리동에서 온 편지>

<The Letter from Malli-dong> video presentation

7017 사업 진행과 중림동공원 조성을 배경으로, 2016년 서울은 미술관의 주 사업 대상지였던 만리동(현 중림동)에 담긴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모하였다. 만리동에 삶의 터전을 두고 지역과 함께 호흡해온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발굴하고,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네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추진된 공모에 당선된 3의 작품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만리동에서 온 편지’ 작품목록

분야	작가명	작품제목
대상	이윤경	어떤 여행의 기억
우수상	윤성덕	만리동전
우수상	윤나라	만개의 이야기가 있는 만리동

SEOUL IS MUSEUM project invited citizens' story about Malli-dong (present Junglim-dong), the main targeted area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of 2017 and the construction of Junglim-dong Park. We selected three works, which excavated the lively voice of citizens breathing and living in the region and tried to remember the region's history that is vanishing due to development. The works are presented in a form of video.

세션(Session) 4.

세계의 공공미술

Public Art in the World

도시를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

Art that Enriches the City

헬라 헤른베르그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 디렉터)

Hella Hernberg (Director of Urban Dream Management)

시민이 주최가 되는

헬싱키 공공예술 사례

Examples of Public Art Led by People in Helsinki

서정애 (디자인 그룹 A&A(아에오) 공동 설립자)

Seo Jungae (Co-founder, Design Group A&A)

공공미술 & 공공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기

Planning & Designing Public Art & Public Life for Urban Comm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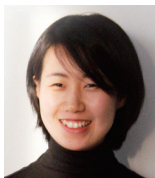
저스틴 개럿 무어 (뉴욕 공공디자인 위원회 사무국장)

Justin Garrett Moore (AICP, Executive Director, NYC Public Design Commission)



시민이 주최가 되는 헬싱키 공공예술 사례

Examples of Public Art Led by People in Helsinki



서정애_Seo Jungae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디자인 그룹 AÄÄ(아에오) 공동 설립자

Co-founder, design group AÄ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핀란드는 복지국가, 교육 선진국가, 남녀 평등과 공직자 청렴 지수 및 언론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로 소개되며, 행복한 삶에 필요한 많은 조건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행복한 국민으로 대표되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향유하는 예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공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공예술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끄는 요소가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더불어 공공예술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도심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주최자, 헬싱키 시민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혹은 문화 행사는 공공기관 및 기업등이 주최하는 하향식 발전 형태가 많습니다. 반면에 헬싱키는 시민이 주최가 되어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도심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향식 발전 사례를 다양한 주제의 문화행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디자이너 Hella Hernberg의 'Helsinki beyond dreams'책에 소개된 시민이 주최하는 행사와 새로운 도심 문화의 사례를 통해 소수의 작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에 발맞춰 헬싱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봅니다. 헬싱키시와 민간 단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및 문화 예술 행사 중,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식과 공공성이 강조된 주요 행사들을 살펴봅니다. 헬싱키 시에서 작년에 다시 문을 연 헬싱키 시립 미술관 HAM이 예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축제 기간에 예술가와 시민이 협업하여 만들어 나가는 참여형 공공예술 사례, 북유럽 최대 규모의 디자인 행사인 헬싱키 디자인 위크 기간에 도심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는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서 헬싱키 시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사례깊은 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술을 물질이 아닌 시민의 생각과 삶 속에서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민이 삶속에서 가지는 권리와 그 권리가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예술로 발현 되는지 소개합니다. 한 국가 안에서 인간이 가지는 많은 권리 중, 핀란드에 살고있는 모든이에게 있는 조금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핀란드 국유지(길가, 공원, 숲)에 있는 열매를 채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예술가의 질문을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교류할 수 없었던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한 시민 참여형 예술 사례를 살펴봅니다. 도시에 존재하는 공공예술은 핀란드의 가로수에 맺힌 사과를 마음껏 따 먹듯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삶 자체가 예술이 된다면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예술의 형태로 발현되는 시민이며 시민의 삶이 될 것입니다.

What are conditions for a happy life? Finland is introduced as a country advanced in welfare system and education and in a higher rank in gender equality, governmental integrity quotient, and freedom of press. It is also selected in a higher rank in its people's happy index in the world based on many conditions for a happy life. The presentation will introduce new perspectives and various examples of public art, specifically what kind of the arts the Helsinki people enjoy in the city, the capital of Finland. Through the examples, I will explore what kind of role public art plays in the citizens' life and how it leads to a happy life.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ways that public art can create a prosperous city.

First of all, I will introduce activities of Helsinki people, the agents who actively make culture in the downtown. Festivals and cultural events held in downtown usually take a top-down form of development led by public institutions or companies. On the contrary, in Helsinki, many cultural events of various themes take a down-top form of development and the citizens become the subject who makes a new form of downtown culture necessary for the citizens themselves. We can see the result when a few people's thought is transformed into an action through citizen-driven events and new examples of downtown culture, from Helsinki Beyond Dreams, written by a Finnish designer, Hella Hernberg.

In addition, I will review what kind of efforts the city of Helsinki does in order to assist the active citizens'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 will focus on the way of stimulat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major events where publicity was emphasized, from various desig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co-organized by the c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examples include: the efforts of the Helsinki museum of art, HAM, to expand the publicity of art; a participatory public art examples where artists and citizens cooperate; and participatory events that are held in various places in the city during the Helsinki Design Week, the largest design event in Northern Europe. We can find considerate attempts to make it sure that every citizen, from a child to an elderly person, can easily enjoy the arts.

Finally, I will look at the methods to find out public art in the citizens' thoughts and lives. I will introduce the citizen's rights and how they can be realized in communities through the arts. People who live in Finland have a special rights: to collect fruits in Finnish publicly-owned area, such as streets, parks, and forests. I will review examples of citizen-participatory art, which aims to connect different groups that cannot be related before through new experiences and artists' questions, and thus, allows them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proud. Public art in a city should be equal to everyone, as if everyone can pick up an apple on the street. As such, if one individual's life can be art, it is a citizen and his/her life expressed as art to enrich the city.

도시 공동체를 위한 공공미술 & 공공의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기 Planning & Designing Public Art & Public Life for Urban Communities



저스틴 개럿 무어_Justin Garrett Moore / 미국(U.S.A)

뉴욕 공공디자인 위원회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of NYC Public Design Commission

공공미술은 공공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와 경제 활동들을 촉진하며,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더 즐길 수 있고 의미 있으며 기억할만한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공공미술작품의 범위와 실행 여부를 정하는데에 지역 공동체들, 다양한 관계자들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은 가치 있는 공유 자원인 도시 공간의 활력과 유효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한 공간적 조건들을 낳을 수 있다.

뉴욕시는 도시의 건설과 정의의 중요한 일부로서 공공미술을 사용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조각이나 시각 예술에서부터, 예술과 문화 요소의 공공 공간, 건물과 내부 구조로의 통합, 그리고 임시 설치와 이벤트 프로그램의 사용까지 아우른다. 도시 전역의 사람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장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미술과 디자인의 통합을 통해, 뉴욕은 세계 제일의 문화 허브이자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의 일인자 자리를 유지해왔다.

이 발표는 도시 계획과 디자인의 발전 그리고 그 안의 다양한 상황들과 공동체들에 있어서 공공미술과 문화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뉴욕시의 퍼센트 포 아트(Percent for Art) 프로그램, 브루클린의 문화 구역, 그리고 도시전역의 새로운 문화 계획인 크리에이트NYC(CreateNYC)를 사례로 들 것이다.

Public art is a powerful tool to activate public spaces, promote cultural and economic activities, and make places more enjoyable, meaningful, and memorable for both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alike. The involvement of local communities, diverse stakeholders and a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good in defining the scope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artwork can result in unique spatial and experienced conditions that contribute to the vitality and validity of urban spaces as a valued and shared resource.

New York City has a long history of utilizing public art as an important part of its construction and definition. This has ranged from traditional sculpture or visual art to incorporation of arts and cultural elements into public spaces,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and to the use of temporary installations and event programming. Through incorporating art and design interventions to engage people and activate places across the city, New York has maintained its leadership as one of the world's greatest cultural hubs and most desirable cities.

The presentation will highlight the role that public art and culture can have in th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for the city and its different contexts and communities. It will include examples from New York City's Percent for Art program, the Brooklyn Cultural District, and a new citywide cultural plan initiative, CreateNYC.



세션(Session) 5.

내생애 단한곳 단한점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in My Life

<단한곳 단한점> 작가제안 발표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artist video presentation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결과발표

<Public Art in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result presentation



<단한곳 단한점> - 서울을 위한 22개의 제안

<Just One Place and Just One Work> – 22 suggestions for Seoul

“ 만약 당신에게 서울의 한 장소에 한 점의 작품을 설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서울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은 미술관」을 시작함에 있어 미술, 디자인, 건축, 조경, 사진 및 영상분야 22명의 중견작가들이 서울공공미술에 대한 희망을 담아주었다. 서울시가 던진 던져진 어려운 질문에 대해 작가들은 10주간의 깊은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해석들을 스케치 작품으로 선보였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살만한 환경으로 바꾸는 일, 시민을 위한 빈 공간을 늘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 ‘단 한 곳, 단 한 점’은 신선한 제안이자 서울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되었다. 미술계를 넘어 문화예술 전반영역에서 보는 공공미술의 모습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 동안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작품설치’의 한계를 뛰어넘고, 작가적 상상을 더한 제안들은 고집적이고 정형적인 공공미술을 환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작가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단 한 장의 스케치로 담을 수 없기에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생생한 영상과 패널 전시로 준비하였다.

「서울은 미술관」 국제 컨퍼런스에 첫 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단 한 곳, 단 한 점’은 다양한 방식의 공모를 통하여 더 많은 생각들을 모아 서울의 내일을 설계하는 기초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단한곳, 단한점’ 작품목록

분야	작가명	작품제목
미술	구 동 희	zero size return
	김 지 섭	아시바 산책길
	김 홍 석	슬픔의 벽
	노 재 운	11 Facades of Seoul
	원	당신의 무대
	박 미 나	풀밭
	박찬국	남산에서 노들
	배영환	유기동물원
	신형섭	문맹자를 위한 간판
	이민하	Hangdong Art Rail Project
	이수성	세 개의 전등이 달린 기념비
	전용석	커다란 선
	정기현	아트 닭장
	정원철	안산 숨은 숨 전망대
	정희우	광화문 앞 ‘평양’
	한성필	예술주차장 프로젝트

분야	작가명	작품제목
건축	김광수	나무들의 나무 서울 정자나무
	민현식	낙산을 오르다
	하태석	푸른 강의 전설
조경	김인수	서울 광화문 쌀농사
디자인	김기현	Landscape Reflector
	종언X종범	서울 모형점

“If you get an opportunity to install only one work in one place in Seoul and it is the only work that you can leave in Seoul, what would you do?”

Before beginning of SEOUL IS MUSEUM, 22 artists from art, design, architecture, landscape, photography, and video art created hope for public art of Seoul. After the 10-week meditation on the difficult question from Seoul, the artists changed their creative interpretations into sketches.

In transforming deserted urban environment into a livable one, making more empty spaces for citizens, and practicing public art with citizens, Just One Place, My One & Only Work was a innovative suggestion as well as a stimulation for new discussion on public art in Seoul. Public art seen not only from art but from every sector of art and culture was interpre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expressed in different ways. The artists' suggestions full of imagination surpassed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installation of an artwork'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obsolete and typical concept of public art.

As the artists' deep thoughts couldn't be gathered in one sketch, we did individual interviews and showed their messages in video screening and exhibition.

Star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EOUL IS MUSEUM, Just One Place, My One & Only Work will collect more thoughts through various forms of contest and use them as the foundation in constructing the future of Seoul.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

<Public Art in the Urban Manufacturing Area>

박동수_Park, Dongsu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디자인재단 책임연구원

Seoul Design Foundation

삶 세 개가 만나면 세상이라 했다.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은 세 개의 삶이 공공미술로 만나 하나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 개 삶 중 첫 번째는 도심제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문래, 을지로, 성수, 용산 등 도심제조지역은 1960~90년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번영을 이끌었던 제조업의 첨병이었으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값싼 외국산 제품 유입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동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은 빗바랜 사진처럼 깊은 서랍 속 유물과 같이 남았으나 이를 가능하게 했던 기술자, 엔지니어, 장인들은 여전히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재현할 수 있는 고급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술가들의 삶이다. 여기에서 예술가는 건축가, 미술가, 디자이너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끊임없는 고민과 상상력으로 도시의 일부를 공공미술을 통해 변화 시키려 노력한 이들이다. 그러나 도전의 기회는 많지 않았고 활동의 영역도 작업실 안에서 밖으로 넓히기 어려웠다.

세 번째는 공공미술 인접분야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의 삶이다. 십수년의 활동과 경험을 통해 예술로 시민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창조해내고, 관련 경험을 보완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해왔던 삶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도심제조지역의 엔지니어, 장인, 시민과 도시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예술가와 만난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은 이 세 종류의 삶을 도시 서울에 녹이며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작가 중심으로 혼자 작업실에서 고민하고 창작 및 생산된 완료형이었던 기존 공공미술 공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정형 공공미술'로 설계되었다.

아이디어가 아트플랜(실행계획)으로 발전해나가고 중국에는 작품으로 완성되어 현실에 안착될 때까지 여러 번의 고민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창조랩>을 운영했다. 도시창조랩은 '집중검토회의(Public charrette)'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예술가가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며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시창조랩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단점을 찾아내는 심사의 자리라 아니라 여러 문제들의 발생가능성을 가정하고 검토하여 공공미술 작품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도심제조지역 공공미술>은 지난 7월 시작해 아이디어 110건을 접수하였고, 도시창조랩 1~2와 심사를 거쳐 28건의 아트플랜을 선정하였으며, 도시창조랩 3과 오는 12월 최종 심사를 거쳐 우선실행작품으로 선정된 아트플랜은 2017년 문래, 을지로, 성수, 용산 등 도심제조지역에 설치 또는 실행될 예정이다. 그 외의 아트플랜은 내년 전시와 공개 프로모션을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소개하고 해당 기관의 예산지원을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When three lives meet, they become a world. Public Art in Urban Manufacturing Area aims to make a unique world where three lives encounter through public art.

First life is that of people living in urban manufacturing area. Urban manufacturing area, such as Mullae, Uljiro, Seongsu, Yongsan, etc, was the advance guard leading to prosperity of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However, it declined because it didn't adjust to rapid change in industrial environment and deindustrialization continued due to import of cheap products from abroad. The glorious past became an antiquity like a faded photograph, but technicians, engineers, and masters who made it possible still live in the area and keep their high-technique and experiences that can re-embody the ideas.

Second life is that of artists. The concept of artist includes architects, painters, and designers, whose creative ideas do not cease to challenge to cities and who, with incessant pondering and imagination, try to transform a part of the city through public art.

Third life is that of professionals working near the realm of public art. Through decades of careers and experiences, they generate more efficient ways of making a meeting point between the city and its people and expand the working area by adding more experiences. If these experiences can meet engineers and masters of urban manufacturing area and artists challenging the city and its people, there is no doubt that the encounter would draw a new landscape of public art.

Public Art in Urban Manufacturing Area is a project fusing the three lives in the city of Seoul. It is designed as a 'process public ar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preexisting form of public art contest, which the artist ponder, create, and complete in his studio only by himself.

The project ran Urban Creation Lab, in which we could hear various people's opinions until ideas develop into art plan (operation plan), and finally, into an artwork in a real life. Urban Creation Lab was a form of Public charrette,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for various professionals and artists to discuss and ponder upon their ideas. Hence, Urban Creation Lab was not an examination to judge and criticize, but it experimented and examined many possible problems, to minimize a future occurrence that a public art work is ignored by the people.

Since last July, Public Art in Urban Manufacturing Area received 110 ideas and selected 28 art plans through Urban Creation Lab 1 and 2 and evaluations. The final art plan selected through Urban Creation Lab 3 and the final evaluation will be installed or executed in the urban manufacturing areas. We will try to introduce other art plans to the city of Seoul and related institution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rough exhibitions and open promotions next year, in order to realize the plans with funding.

세션(Session) 6.

서울은 (공공) 미술관 패널토론

Seoul is (Public) Museum Panel Discussion

좌장 : 양현미(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Moderator : Yang, Hyun Mee(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 Arts Management)

주제 1. 공공장소에 세워진 조형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Subject 1. To Whom does a work in
public space belong?

주제 2. 예술이 도시공간에 어떻게 개입 해야 하는가?

Subject 2. How Should Art Intervene in
urban Space?



패널토론

Panel Discussion

주제 1. 공공장소에 세워진 조형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Subject 1. To Whom does a work in public space belong?

주제 2. 예술이 도시공간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Subject 2. How Should Art Intervene in urban Space?



좌장 : 양현미_Yang, Hyun Mee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 Arts Management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역임

Senior Researcher,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Director-General, Culture & Planning Burea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안규철_Ahn Kyu chul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공공미술자문단장

The Head of Seoul Urban Art Project Advisory Committee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2015), 하이트컬렉션 개인전(2014), 광주비엔날레(2012) 등 국내외 전시

서울미대 조소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 졸업

Several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MMCA Hyundai Motors 2015, Hite Collection 2014 and Gwangju Biennial 2012.

Studied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kademie der Bildende Kuenste Stuttgart



패트리샤 월시_Patricia Walsh / 미국(U.S.A)

미국예술연합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

Public Art Programs Manager of Americans for the Arts

패트리샤 월시는 미국예술연합의 공공미술 프로그램 매니저이다. 라스베이거스와 산호세를 포함한 많은 시정부에서 일한 바 있다. 월시는 보스턴 대학의 예술 행정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Patricia Walsh is the Public Art Programs Manager in the Americans for the Arts. She has worked for several city governments, including the city of Las Vegas and the city of San Jose. She received MA degree in Arts Administration at Boston University.



저스틴 개럿 무어_Justin Garrett Moore / 미국(U.S.A)

뉴욕 공공디자인 위원회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of NYC Public Design Commission

저스틴 개럿 무어는 도시 디자이너이자 뉴욕시 공공디자인부서의 사무국장이다. 또한 미국 도시 개선을 목표로 하는 어반 패치의 공동설립자이다. 컬럼비아 대학의 건축 도시 디자인 학과에서 건축학과 과학 이중석사학위를 받았다.

Justin Garrett Moore is an urban designer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 York City Public Design Commission. He is also cofounder of Urban Patch, which aims to make American inner city better. He received dual degree of Master of Architecture and Master of Science i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at Columbia University.



헬라 헤른베르그_Hella Hernberg / 핀란드(Finland)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 디렉터

Art that Enriches the City

헬라 헤른베르그는 희귀한 자원의 창의적 사용과 건축 환경의 참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다. 또한 어반 드림 매니지먼트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헬싱키 테크놀로지 대학 건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알토대학 디자인 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Hella Hernberg is an architect and designer specialized in creative use of scarce resources and participatory design of the built environment. She is also the director of Urban Dream Management. She received her MA degree in Architect (MSc) at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is now a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Design at Aalto University.



박삼철_Park, Sam-chul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Seoul Design Foundation

공공미술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2000년 말콤 마일즈의 <미술, 공간, 도시>를 번역하고 2006년 <왜 공공미술인가>를 저술했다. 2007~2009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도시갤러리> 추진단장을 맡았고, 2009년 서울디자인재단 창단 이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기획 및 운영에 참가했다. 현재는 DDP 상생본부장, 서울시 공공미술자문위원이다.

He works as a programmer of Public Art and now the Director of the Cooperative Business Division at Seoul Design Foundation and a member of Public Art Committee of the city of Seoul. He also translated Malcom Miles' Art, Space and the City in 2000 and wrote Why Public Art in 2006. He was the head of steering group of City Gallery, a Public Art project of Seoul, and after the initiation of Seoul Design Foundation in 2009,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operating of DDP.



최태만_Choi Tae ma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후, 현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미술평론가·미술사학자·전시기획가로써 2014년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사)부산비엔날레 조직 위운영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회장, 김종영미술관 운영위원을 맡고있다.

He graduated Painting, School of th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Fine Arts, College of Art, Kookmin University. He is an active art critic, art historian, and curator, and worked as an art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4. Now, he is the vice-president of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an operating member of Kim Chong Yung Museum, and an operating member of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박성태_Park Seongtae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

Junglim foundation, Director

<마가진> 편집인, <공간> 편집장, <인서울매거진> 편집장

<magazyn.co.kr> Editor, <Space> Editor-in-chief, <In Seoul Magazin> Editor-in-chief

유석연_Yoo, Suk Yeon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Design University of Seoul

「서울은 미술관」 선언

Declaration of
「Seoul is Museum」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약속

The Promise of SEOUL URBAN ART
PROJECT



「서울은 미술관」 선언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약속

Declaration of 「Seoul is Museum」

The Promise of SEOUL URBAN ART PROJECT

「서울은 미술관」 선언문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의 근본 목적은 효율성과 상업적 이익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도시를 시민이 머물고 서로 만나고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변화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공공미술은 안이한 접근방식과 부조리한 관행으로 인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로 도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미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도시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으로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은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약속합니다.

2016.12.14.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약속

1. 공공미술의 주인은 시민이다.

(서울은 미술관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가장 먼저 배려한다.

1.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서울은 미술관은) 예술의 이름으로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방해하지 않는다.

1. 공공미술은 공간과 자원을 소중히 여긴다.

(서울은 미술관은)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개입한다.

1. 공공미술은 도시의 결점을 가리고 표면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의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한다.

1. 공공미술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변화한다.

(서울은 미술관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의미와 가치를 담는다.

Declaration of SEOUL IS MUSEUM

Since 2016, The city of Seoul launches a public art project Seoul Is Museum of the purpose of “the entire city of Seoul becomes a museum.”

The fundamental purpose of public art is to give the city back to the citizens by transforming the city organized by efficacy and commercial interest into a cultural space where people stay, meet, and communicate. However, due to its naive approaches and unfair practices, today's public art does not solve the city's problems, but rather becomes the problem itself.

Seoul Is Museum public art project tries to revive the original role of public art to pursue public value of a better life for citizens in Seoul. It tries to make Seoul more comfortable and close to the citizens by embracing new artistic imagination and humane feelings and by reserving history and memory of disappearing spaces.

Therefore, Seoul Is Museum promises as follows.

December 14th, 2016

The Promise of Seoul Urban Art Project <Seoul Is Museum>

1. The owner of public art is citizens.

(Seoul Is Museum) considers the citizens of Seoul, who live now in here, the most.

1. Public art is for citizens' lives.

(Seoul Is Museum) does not interrupt their everyday life and work under the name of art.

1. Public art preserves space and resource.

(Seoul Is Museum) intervenes in the necessary places to the necessary extent, in a deliberate and temperate way.

1. Public art is not to hide flaws of the city and embellish the surface.

(Seoul Is Museum) reveals and repairs the city's problems.

1. Public art does not last forever, but changes with the city.

(Seoul Is Museum) contains meaning and value of the contemporary era, although it can be variable and temporary.

MEMO

제1회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2016.12.13. ~ 12.14.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발행일 2016.12

발행처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발행인 박원순

주 최 서울특별시
고홍석 문화본부장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
유제우 공공미술팀장
이승현 공공미술팀장 직무대리
백 곤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 담당
박재은, 장운영, 김보미, 이 랑 공공미술팀

공공미술 자문회의

안규철 공공미술자문단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김장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기획2팀장
박삼철 서울디자인재단 상생본부장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백지숙 SeMA 미디어비엔날레 디렉터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준 ㈜리마크프레스 대표

운 영 (주)글로벌에프앤씨

본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글과 그림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인쇄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자료를 활용할 경우 발표자와 발행처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Copyright 20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d.

[문의 : 2133-2726]



